

AYAF 2014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 심사평

※ 본 심사평은 심의위원들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 심의 : 2014. 4. 14(월) 10:00~18:00,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2차 심의 : 2014. 4. 24(목)~4. 25(금) 10:00~18:00, 한국공연예술센터 스튜디오 다락
- 심사위원 : 김기영, 김서령, 김진이, 박성혜, 서재형, 안경모, 유은선, 정만섭, 정순민, 조성주

AYAF 2013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은 총 120명이 지원 신청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20명의 젊은 창작자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의 차세대 유망 예술인력을 발굴하여 창작과정에 필요한 리서치 과정과 시설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인력양성 사업으로서, 올해 기획 부문까지 그 지원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추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예술적 기량과 성장 잠재력, 프로젝트의 독창성 및 참신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 등을 심의기준으로 삼아 32명의 작업자를 선정하였다.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현재까지의 활동성과,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 해외리서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작품 반영방안 등 이상 네 개의 공통 질문과 신청자 개별 질문(연극 분야에 한함)을 미리 공지하여 이에 대한 준비된 발표를 듣고 이후 질문과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2차 심의 전 과정에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예술 분야별 전문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장르적 안배나 형평성 보다는 창작자의 성장 잠재력과 동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 등에 비중을 두어 공연예술분야의 창의적인 예술가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선발된 20명의 젊은 창작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연극분야 : 김명환, 윤혜숙, 이은서, 임지민, 전성현

무용분야 : 김준희, 박연정, 이상훈, 전효인

음악분야 : 남상봉, 서지훈

전통분야 : 유민희, 이정표, 진윤경

다원예술 분야 : 김은영, 김태원, 남승연, 서영란, 이동규, 조진욱

<분야별 심사평 및 선정사유>

연극분야

올해 연극부문 선정자들은 각기 다른 영역을 다채롭게 탐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띠었다. 궁극적으로 '연극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신진다운 접근들이었고, 그 영역은 사회학적인 면에서부터 자기체험적인 면, 연극학적 양상에서부터 연기론적 탐구와 무대기술적 면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그 다양함이 서로에게 그리고 연극계에 작은 의미들이 만들어 내리라 기대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천된 지원자가 연극부분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예술세계에 대한 고민이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지원자도 있었고, 신진이라 하기엔 이미 활동이 지나치게 부각된 지원자도 있었다. 또한 기획자들의 경우에도 실 예술창작자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예술적 고민들은 부족했기에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된 예술가는 다음과 같다.

김명환은 예술의 상업적 측면에서 갈등했던 자기성찰의 과정을 진지하게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 자본이 강제하는 예술완성도를 경험했다는 점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안고 있고, 그 성찰의 시선마저 표피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고민을 응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윤혜숙은 몸과 소리, 오브제를 통한 연극성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 물론 소속 극단의 창작스타일과는 다소 다른 행보이고, 그 탐구와 결실의 과정이 지난하다는 점이 우려되기 했지만, 그간의 꾸준한 실천과정에서 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갖게 했다.

이은서는 연기론의 탐구를 위해 미하일 체홉 방법론과 뷰포인트 훈련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수행해왔고, 그 탐색의 과정이 의미 있는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다만 아직은 선형적이고 가설적인 측면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 연구의 차원에 머물 우려가 없진 않지만, 연기론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연극계에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임지민은 그간 다양한 프로덕션의 경험을 통한 예술적 성과가 프로덕션 수행에 많은 자양분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게 했다. 다소 기술적인 논란은 있지만 미디어를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려는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었기에 충분히 선정될 요건을 갖추었다. 물론 미디어의 미학적 선택 이유는 더욱 보완할 필요는 있었다.

전성현은 재난에 대한 연극적 사유가 진지했고 예술가로서의 사회학적 접근이 온당했고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작가라는 역할로 제한될 수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공동창작의 과정과 새로운 멤버십을 통해 파열과 도약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무용분야

올해 무용분야는 사업의 규모나 현장에서의 관심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원자 수가 적었고, 지원 신청자의 수준 편차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실연과 창작활동이 분리되기 어려운 무용 장르적 특성 때문인지 신청자들은 전반적으로 실연자로서의 기량은 우수하나, 창작자로서의 고민의 깊이, 창작적 아이디어, 신진 안무가 다운 도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해외 예술현장 체험활동 계획의 경우, 개개인의 창작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임에도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손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몇몇 축제와 워크숍에 집중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단순히 작품 발표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배제하였으며 창작과정과 본인의 작업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술가는 다음과 같다.

김준희는 그 동안 무용수, 교육자로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안무가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동문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음에도 안무가로서 본인의 작가적인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춤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춤 창작자로서 움직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작가적 고민이 무대 위에서 긍정적으로 표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연정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망구라는 하나의 테마를 20분, 50분, 60분 집요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한국무용 전공자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망구연작을 판소리와 설치미술을 결합한 솔로 버전으로 확장시켜보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공감을 얻었다.

이상훈은 벨기에 안무가 Sidi Larbi Chera Chaui와 함께 한 2년간의 작업경험과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행한 리서치 경험이 창작자로서의 발전적 모색에 필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작품의 소재발굴과 창작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멘토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꾸준히 공연제작과 작품활동을 병행하면서 고민과 실천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전호인은 최근 꾸준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주목받는 고블린 파티의 멤버로 무용수, 안무가, 드라마 투르기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작품창작 활동에 매진해 왔다. 발레 기반의 안무가가 부족한 국내 무용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독창적인 안무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사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음악분야

음악분야의 경우, 창작음악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음에도 실연자의 지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창작역량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음악분야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음악의 여러 세분화 된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창작자와 연주자, 순수음악과 재즈 등 대중음악의 경계들을 허무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음악회 형식은 연주자의 역할은 있어 보이나, 소위 말하는 퓨전 형태의 시각적이고 즉흥적인 한두 번의 단발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하여 젊은 예술가 지원 사업 취지에 맞는 작가 육성과 예술성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선정된 예술가는 다음과 같다.

남상봉은 전형적인 작곡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작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로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멀티미디어 음악극을 준비하면서, 엠포이(m-poi)라는 새로운 악기를 개발하고, 이런 기술적인 전자음향을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단계로 끌어 올리고자 다양하게 시도하는 예술적, 인문학적 접근을 높이 평가하였다.

서지훈이 신청한 프로젝트는 자신의 창작음악회를 포함하여 젊은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를 소개하는 일련의 현대음악축제 사업으로, 소외된 한국 창작음악의 발전을 위해 젊은 작곡자들의 창작활동을 진작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음악가로서의 사회적 연대감과 지원자의 패기, 열망이 지지를 얻으며 지원의 필요성을 얻어냈다. 선정자를 포함한 한국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많은 음악적 대화와 소통을 시도한다는 주제 의식에 동감하며 제출한 사업의 축소 변경을 전제로 선정하였다.

전통분야

타 장르에 비해 전통예술 분야 신청자가 너무 적었으며, 지원자 대부분이 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열정과 재능을 가진 많은 차세대 전통예술가들이 본 사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아쉬움이 크다. 프로젝트 내용의 독창성, 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아티스트의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세 명의 예술가를 선발하였다.

선정된 예술가는 다음과 같다.

유민희는 자신의 작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착실한 준비가 돋보였으나, 기존 작곡발표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보다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활동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이정표는 스스로의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프로젝트에 담았다. 기성 전통예술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쌓아온 것은 인정할 만 하나, 국악과 국악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경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작곡, 노래, 연주에 있어 분산된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대한 성숙의 기회와 함께 성찰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윤경은 피리와 악곡에 대한 탐구와 확장을 계획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계획에 신

뢰를 얻었다. 본 사업 수행에서는 예술적 창작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이런 활동이 전공분야는 물론 전통예술을 공부하는 주변의 수많은 음악도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통 예술발전에 우수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원예술분야

최근 국내에서 다원예술을 지향하거나 근접한 경향을 보이는 예술 현상들은 불과 수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보다 주체적이고 다양한 수위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동 사업에 선정된 창작자들의 경우도 기존의 장르적 구분이 요구하는 모종의 권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주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창작적 목표와 맥락, 방법론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다원예술분야 심의를 통해서도 고전적 의미에서의 예술적 우열의 관점이 아닌 다원예술의 본질적 미덕에 충실한 판단의 지점을 공유하면서도, 동시대의 다양하고 지극히 개별적인 접근들이 드러내고 있는 미학적, 사회적 맥락의 독창성과 설득력,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김은영, 이동규, 조진옥은 각기 한국 문학 속 설화, 한국 춤,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구조와 표현 요소에서 현시대를 투영할 수 있는 속성을 포착하고, 각기 실시간 방송, 멀티미디어, 라우드스피커를 공연 형식 속에 혼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텍스트의 해체와 재조합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원은 언어/소리 및 공간(건축물)의 확장과 새로운 접합에 대한 집요한 탐색을 통해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승연**은 현대인의 일상적 대화를 채집하고 임의의 공간 속에 재배치한 오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소통을 위한 행위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려 한다.

서영란은 세계 문화권의 몇몇 기표적인 전통 춤들의 지역적 이동(이주)과 사회적 변형을 문화 인류학적 태도로 추적하여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채집하여 제시하려 한다.

이상 각기 다른 태도와 방식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에 접근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이들의 실험이 전통적 미학과 모종의 역학 관계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새로운 존재 가치를 획득하고 향유자들에게 사고의 확장과 전환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 AYAF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 심의위원 일동